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총기 46년
2017년 1월 1일
음력 12월 4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1년 제206호

신년 종령 법어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자 여러분들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듯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고 희망이 충만한 정유년 밝은 새해 아침도 어김없이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는 '어둠 속에서 빛의 도래를 알리며 만물과 영혼을 깨운다.'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서 빛의 도래를 알리 듯 스스로 밝은 영혼을 일깨워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 반야심경은 관자재보살의 반야바라밀다 수행에 관해 설명한 경전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야바라밀"은 보살이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들을 염려하며 그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지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야바라밀을 실천수행 하려면 모든 중생을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나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하며, 중생들 하나하나가 똑같이 내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내 어머니처럼 나를 돌보아 준 사람에게 느끼는 애정을 내 마음에 불러일으키며 그 애정을 모든 중생을 향해 확장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반야바라밀 수행을 통해 우리는 시작도 알 수 없이 먼 옛날부터 무한한 생애들을 윤회하는 동안 모든 중생들이 서로 관련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며, 모든 중생들이 전생의 언젠가는 우리의 부모였을 것이고 지금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도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었을 것이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불자님들이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신심과 덕행으로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자비행의 실천과 부처님의 지혜의 증득으로 중생제도의 서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정유년 새해 아침
불교총지종 종령 효강합장

소통으로 하나 되는 한해가 되기를

교도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불퇴전의 염송 정진을 통해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기를 비로자나 부처님 전에 간절히 서원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혼돈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여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은 촛불들이 모여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 낸 한 해였습니다.

장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사회의 기강이 바르고 강건한 나라의 모습을 "자주 모여 서로 바른 뜻을 강론하고, 위와 아래가 화목하여 서로 공경하고 순종해 어기지 않으며, 법을 받들어 금기를 알아서 제도를 어기지 않는다. 수행승들이 오래된 장로와 교단의 지도자를 공경하고 존중하여 받들고 예우하고 그들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마음과 뜻을 생각하고 보호해서 효도와 공경으로써 으뜸을 삼고, 사리사욕을 떠난 깨끗한 행을 닦고 본능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며, 남을 먼저 하고 자기를 뒤로하여 명예와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서로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은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서로가 자신의 의사를 진솔하게 밝히고 상대의 동의를 구하여,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의견을 모아 사회를 이끌어 나가면 지금의 갈등도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올해는 가족부터, 직장,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작은 실천부터 해나가도록 합시다. 이 작은 실천이 소통의 첫걸음이고 화합되고 강건한 나라를 만드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교도 여러분! 올해는 정유년 붉은 닭의 해입니다. 닭은 어둠 속에 떠오는 광명의 빛을 가장 먼저 알고 힘찬 울음소리로 맞이하는 동물입니다. 또한 액을 쫓고 상서로움을 전해주는 신령한 동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의 어둠과 액운을 모두 걷어내고 조화로운 사회의 첫 새벽을 힘찬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맞읍시다.

정유년 올 한 해는 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 공덕으로 하시고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정유년 새해 아침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합장

교도 화합과 물러섬 없는 진언염송으로 총지종 창교 정신을 되살리자

제45주년 창교절 기념법회 12월 24일 전국 서원당에서 봉행

▲ 총기 45주년 창교절 기념법회

불교총지종 제45주년 창교절 기념 불사가 지난 12월 24일 총본사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이날은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주옥같은 진언과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궤와 사종수법을 비롯한 정연한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을 갖춘 정통밀교 총지종을 입교개종(立敎開宗)한 날이다.

총본산 서울 총지사에서는 효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법등 정사의 집공으로 제45주년 창교절 기념 불사를 열었다.

효강 종령 예하는 제45주년 기념법회에서 유시문에서 "우리 총지종이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조님의 창종정신과 유훈을 받들고 실천하며, 또한 새로운 종풍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상과 사상을 더욱 확립 발전시키고, 총지종의 수행법과 의궤를 더욱 여법하게 이루어 나가며, 교화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승단과 교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화합은 승가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총지종의 교도들은 종조 원정대성사님의 창종정신과 유훈을 받들어 가치관 혼란의 이 시대에 무명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스승과 교도가 화합 단결, 하나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유시했다.

이어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에서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라는 나옹 선사의 선시처럼 어지러운 세상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종조님께서 세우신 정통밀교의 수행법으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어 나갑시다"라고 다 같이 수행하자고 설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관성사에서 봉행된 창교절 법회 설법에서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입교개종 하신 정통밀교 총지종의 창교절을 맞아, 종단의 교화 발전과 종도간의 화합을 위해 종무 행정의 역량을 집중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서로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자리도 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며 종단 발전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원했다.

지면안내

1면 제45주년 창교절 기념법회
2면 김기자가 가다
3면 종단 주요 불사
4면 불교의 선정
5면 종단주요인사 신년사
6면 주요종단 법어
7면 주요종단 신년사
9면 불교계 주요소식
10면 비주얼 총전
11면 불교문화산책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 (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謹賀新年
총기 46년 · 불기 2561년

불교총지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

종령 효 강 대종사
통리원장 인 선

중앙종의회 의장	수 현	중앙교육원장	화 령
사감원장	안 성	동해중학교 이사장	인 선
총무부장	우 인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 경
재무부장	원 당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안 성
교정부장	법 일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정인화
사회부장	지 정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지 정

중앙종의회 의원
총지종 유지재단
밀교 연구소
전당건설 위원회
(재)사회복지재단
통리원 임직원
각 사원 주교 및 스승

법장원
총지종보 및 종보 통신원
각 교구 신정회 일동
만다라요양원 · 바라밀지역이동센터
초록어린이집 · 잠원햇살어린이집
일원어린이집 ·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자성일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김기자가 가다

정유년 붉은 닭의 해. 그 깊은 의미를 다시 새겨보자

2017년 정유년 닭의 해가 밝았다.
십간 중 네 번째인 정(丁)과 십이지 중 열 번째인 유(酉)가 만난 해이다.
간지 정(丁)이 붉은 색을 나타냄으로 올해는 붉은 닭의 해이다.

어둠을 물리치고 여명을 여는 힘찬 닭의 울음소리

닭이 한반도에 자생하기 시작한 것은 문헌상으로 삼한시대 이전 부터라고 하나, 닭이 본격적으로 한국문화의 상징적 존재로 나타나게 된 것은 『삼국유사』에서 혁거세와 김알지의 신라 건국신화에서 부터이다. 닭은 울음으로써 새벽을 알리고, 빛의 도래를 예고하는 동물이다. 닭이 울면 새벽이 오고 어둠이 끝나며, 밤을 지배하던 마귀나 유령도 물러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닭의 울음은 시보(時報)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逐鬼)의 능력이 있어 빛을 불러오고 액을 물리친다.

▲ 통도사박물관 소장 십이지신 닭

그래서 조상들은 벽사와 축귀의 의미로 닭 그림을 대문에 붙이거나, 닭 피를 발라 안녕을 빌었다. 또한 닭은 태양이 뜰 때를 예견하는 예조(豫鳥)로서 추앙하거나, 볏의 모양이 마치 관(冠)같다 하여 입신출세와 부귀공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병아리를 돌보는 모습에서 자손번창의 기원을 담기도 하였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명(黎明)을 알리는 닭은 상서롭고 신통력을 지닌 서조(瑞鳥)로서, 그 우렁찬 울음소리는 한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서곡(序曲)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다.

액을 쫓고 상서로움을 전해주는 동물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정월 원일』조에 "(설날) 벽에 닭과 호랑이의 그림을 붙여 액이 물러가기를 빈다"고 적혀 있다. 닭은 액을 쫓고 상서로움을 전해주는 동물로 인식되어 정월 초하루 새벽 대문에 내다 붙여 액을 쫓는다는 문배(門排, 또는 세화 歲畵)로도 그려졌다. 또한 닭의 외형과 성격, 습성과 같은 여러 특성들은 '상징화'되면서 갖가지 꽃의 상징성과 더해져 입신출세·부귀공명의 길상(吉祥)을 의미해 그림 소재로도 많이 다뤄지게 되었다.

모란과 함께 그려 부귀를, 국화와 함께 그려 장수(長壽)를, 씨가 많은 석류와 함께 그려 씨(자식)를 많이 품는 다산(多産)·다자다복(多子多福)을, 벼슬을 뜻하는 관(冠)모양의 맨드라미와 붉은 볏을 가진 닭을 함께 그려 높은 벼슬을, 바위 위에서 우는 닭을 그려 집안의 대길(大吉)을 뜻하는 등 상징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닭은 서쪽을 지키는 방위신이자 오후 5-7시를 지키는 시간신이다. 십이지동물은 각 시간과 방위에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신의 역할을 한다. 특히 신라시대 이후 죽은 사람[死者]의 무덤 호석(護石)이나 부장품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불교나 민간신앙과 결합되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다.

주요 작품으로는 변상벽(卞相璧)의 『계도(鷄圖)』, 닭과 맨드라미가 그려진 장승업(張承業)의 『화조십이지병풍닭』, 닭을 새겨 넣은 『종이 이층농』, 『수저집』등 액을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길상동물로서의 닭 관련 유물이 전시된다. 이 가운데 『계도』는 고양이와 닭 그림을 특히 잘 그린 조선후기 화원(畵員) 변상벽의 작품으로 닭 그림 중 가장 빼어난 기교를 보여주는 걸작 이다.

중요한 먹거리 닭

닭은 열대 지방이 원산지이며 삼국시대 이전에 남방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본초강목』에서는 조선산으로 꼬리가 긴 장미계(長尾鷄)가 닭 중에 맛이 좋다고 하였다.

닭고기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수육(獸肉)보다 지방이 적고 섬유가 가늘고 연한 것이 특징이며, 담백하고 소화흡수가 잘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닭 요리에 대해 쓰인 대표적인 고(古)조리서 들을 살펴보면, 안동 장씨 부인에 의해 한글로 쓰인 가장 오래된 조리서인 『음식디미방, 규곤시의방, 1670년대)』을 비롯해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영조 42년(1766년) 유중임 증보)』, 『규합총서(빙허각 이씨, 1809년)』, 『시의전서(작자미상, 1800년대)』,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이용기, 1924년 초판)』, 『이조궁정요리통고(李朝宮廷料理通攷 ; 한희순, 황혜성, 이혜경 공저, 1957년)』등이 있다. 또한 의궤에서도 닭 요리법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나타난다. 닭은 주재료로, 혹은 부재료로서 찜, 구이, 죽, 탕, 조림 등 다양한 조리법을 거쳐 무궁무진한 요리를 선사한다. 오늘날에는 치킨으로 대표되는 다양하고 특색 있게 상업화된 닭요리가 있으며,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오늘날에도 닭은 십이지동물 이지만 현대인에게 있어서 '광명'이라는 닭의 상징성이 점차 잊혀져 간다. 닭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새해를 설계하고 희망에 찬 꿈을 지녔던 옛사람들과 같이 2017년, 새날의 상징인 닭과 함께 희망을 품고 시작하자.

구성편집=김종열 기자

▲ 김홍도 작. 금계필봉도

불교총지종 인사발령

소 속	불 명	발 령 사 항	발 령 일 자
총지사	현일	수계사 파견 근무를 면함 수계사 주교 근무를 명함.	총기45. 12. 26
총지사	혜음	총지사 교화 근무를 면함 선립사 주교 근무를 명함	총기45. 12. 26
실보사	보현	출판물 감수위원에 위촉함	총기45. 12. 19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11월21일 ~ 12월20일까지

관성사	김대기	11/29	10,000
	김대기	12/16	10,000
	김병석	11/30	10,000
	인 선	11/21	20,000
	인 선	12/19	20,000
	황성녀	11/29	10,000
기로스승	해 정	12/20	10,000
	해 정	11/25	10,000
	대 관	11/21	10,000
	대 관	12/19	10,000
	상지화	11/21	10,000
	상지화	12/19	10,000
	수증원	11/21	10,000
	수증원	12/19	10,000
	밀공정	11/21	10,000
	밀공정	12/19	10,000
	총지화	11/21	10,000
	총지화	12/19	10,000
	선도원	11/21	10,000
	선도원	12/19	10,000
	법지원	11/21	10,000
	법지원	12/19	10,000
	일성혜	11/21	10,000
	일성혜	12/19	10,000
	불멸심	11/21	10,000
	불멸심	12/19	10,000
	사홍화	11/21	10,000
	사홍화	12/19	10,000
	안주화	11/21	10,000
	안주화	12/19	10,000
개천사	강순시	11/22	10,000
	한영란	12/14	1,000,000
	이희권	12/15	10,000
	전세형	12/5	30,000
밀인사	정정희	11/30	5,000
	이기상	12/16	10,000
	안옥진	12/16	10,000
	이성수	12/16	10,000
	박주연	12/16	10,000
	이수연	12/16	10,000
만보사	정덕순	11/28	10,000
불교총지종			
	불우이웃돕기	12/20	5,000,000
백월사	박종순	12/12	5,000
벽룡사	양정현	12/6	10,000
	양지현	12/6	10,000
	권혁민	12/6	10,000
법황사	박미경	12/19	10,000
실지사	조성우	12/2	10,000
	박병성	11/21	20,000
	박병성	12/19	20,000
	이순명	11/21	20,000
실보사	이순옥	12/1	10,000
수인사	정순득	12/15	10,000
	무명씨	11/30	10,000
선립사	심지장	12/16	10,000
일원어린이집			
	구미자	11/30	10,000
	김지영	11/26	10,000
	김용미	11/25	10,000
	이준동	11/25	10,000
	구나영	11/30	10,000
	하재희	11/25	50,000
운천사	무명씨	11/22	20,000
	무명씨	12/14	20,000
정각사	변순개	12/9	10,000
	탁상달	12/20	20,000
	김문수	11/29	10,000
충청전라교구			
	방생모금	12/19	463,000
초록어린이집			
	황화성	11/25	30,000
총지사	법 등	12/5	30,000
	신용도	12/12	10,000
	박정희	12/12	10,000
	백지순	12/3	30,000
	손경옥	12/15	10,000
화음사	무명씨	12/2	10,000
	무명씨	12/15	10,000
	무명씨	12/15	10,000
	인간방생비	12/12	20,000
혜정사	정은선	12/15	10,000
	최영례	12/20	10,000
사원명무기명			
	무명씨	12/14	10,000
	지성인	12/15	20,000
	김갑선	12/19	10,000
	김갑선	11/21	10,000

2016년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금사용내역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금은 형편이 어려운 교도 및 이웃에게 투명하게 사용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곽 00교도 40만원x12개월 = 480만원지원
* 조 00교도 40만원x12개월 = 480만원지원
* 안 00교도 40만원x12개월 = 480만원지원
* 김 00 님 30만원x12개월 = 360만원지원
* 포항수인사(수인회), 독거노인반찬배달, 동네어르신잔치 독거노인김장봉사 = 500만원지원
* 강남구청,역삼2동주민센터,따뜻한겨울나기사업 백미쌀20kg X 143포지원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사회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 원장 수상

'2016 전국보육인대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일원 어린이집 원장 하재희

▲ 포레스트 어린이집 원장 손재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12월 5일 오후 1시부터 렛츠런파크 서울 럭키빌 6층 컨벤션홀에서 '아이들과 보육인이 행복한 나라, 희망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2016 전국보육인대회'를 개최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건복지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보육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 약 3,500여명이 참석하여 보육 사업 분야 유공자를 격려하고 보육발전과 보육인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에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서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일원 어린이집 하재희 원장과, 포레스트 어린이집 손재순 원장이 우수 보육기관장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같은 재단 산하의 어린이 집이 동시에 수상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년 전국 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보육인대회는 보육인들과 보육관계자들의 제일 큰 행사로서 우수 보육인들에게 훈·포장 및 국무총리, 복지부장관 표창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영유아들의 처음 교육을 위해 모든 노력과 수고를 기울이는 32만여명 보육인들의 노고에 격려와 축하를 하는 자리이다.

사회복지재단=김평석 교무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2016년 제3차 이사회 개최

차기 이사장에 홍파 스님 총회 추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12월 12일 오후 2시 서울 한일불교 회의실에서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3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부회장에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과 상임이사에 진각종 총무부장 호당 정사를 선임했다.

신임 부회장 회성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일불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장에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을 이사회에 추천키로 하는 한편 상임이사 혜천 스님(진언종 총무원장)과 혜각 스님(총화종 총무원장)은 탈퇴했다.

앞서 이사회에서는 올해 예산 일반회계 4억 9452만원, 특별회계 4천 500만원 등 총 5억 3952만원을 심의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6월 12일~15일, 법주사 예정) △제12차 한일여성불교교류대회(10월 말, 가고시마 예정) △제1차 청소년 교류사업 △제12차 무차만발공양(부산) △평화의 타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제3차 이사회 개최

신년하례법회 1월 19일, 총회 2월 23일 개최

▲ 한국불교 종단 협의회 제3차 이사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스님. 이하 종단협)는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어 이사회는 불기 2561(2017)년도 예산을 일반회계 8억 4110만원, 특별회계 4억 5300만원 등 총 12억 9410만원으로 확정하고,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의 이사 선임 추인안을 의결했다.

또 12월 21일 '세시풍속,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 나눔' 행사를 종단협의회 소속 26개 종단과 사찰 112곳 등 전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이 있는 광화문을 비롯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사동, 직장인들이 왕래하는 시청광장,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노량진역 등에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정유년 신년하례법회는 오는 2017년 1월 19일 오후 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하기로 결의했으며 2017년 정기총회 및 이사회는 2017년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교구장 월례회의 개최

신 교화방안 및 종단 현안 논의

▲ 12월 교구장 월례회의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12월 12일 통리원 부장실에서 전국교구장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정인화 부산·경남 교구장, 법경 서울·경인 교구장, 안성 대구·경북 교구장, 지정 충청·전라 교구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리원 집행부와 종단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종단의 미래가 걸린 신 교화 방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최근 불교계가 교화의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화 현장인 지역사원에서 제시하는 좋은 방안들은 적극 수용하여, 종단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며 교화 일선의 스승들과 항상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통리원은 매월 종단 주요현안을 반영하는 교구장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김초랑기자

관성사 박영자 보살

한빛 문학상 신인상 수상

총지종 관성사(주교 인선 정사) 교도 박영자 보살이 12월 16일 중구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기 한빛 문학상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다.

박영자 보살은 평소 누구보다도 신행활동에 열심히 동참하는 교도다. 아침을 진언염송으로 시작하는 박영자 보살은 오랜 꿈인 문학을 손에 놓지 않고, 생활 중 틈틈이 글을 써 이번 한빛 문학상 신인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영자 보살은 "총지종의 밀법 수행은 저에게 생활을 이끌어나가는 에너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작품 또한 부처님의 진리와 법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느낀 감정을 원고지에 옮긴 겁니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언제나 관성사와 종단의 모든 불사에 빠짐없이 동참하는 박영자 보살은 오늘도 진언염송을 통해 즉신성불의 대도를 열어가고 있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자비의 쌀 나눔

백미 20Kg 143포 전달

▲ 사회복지재단 자비의 쌀 나눔현장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연말 이웃돕기의 일환으로 백미20Kg 143포를 강남구청 사회복지과와 역삼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강남구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80포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63포를 각각 전달했다.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인선 정사는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연말 자비의 쌀 나누기 일환으로 전달한 백미는 그동안 지역 사원과 교도들이 보내주신 작은 성금을 모아 마련한 것입니다. 불교의 근본정신인 자비와 보시행의 실천으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연말연시를 보내기를 서원합니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자비의 쌀 지원과 불우가정 생활비 지원 등 복지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며, 어린이집 4개소, 지역아동센터 1개소, 노인요양원 1개소를 운영하는 종합복지재단이다.

김초랑기자

총지종 출판물 감수위원회 개최

종보 및 위드다르마 개선방안 논의

▲ 12월 출판물 감수 위원회

불교총지종 출판물 감수위원회 월례회의가 12월 26일 통리원에서 개최됐다. 출판물 감수위원회 도현 정사, 법수연 전수, 지현 전수, 덕현 전수 및 새로 위촉된 보현 전수와 교정부장 법일 정사와 종보 김종열 편집장, 위드다르마 이선희 편집책임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신년 1월호 종보 및 위드다르마 제작 계획을 보고 받고, 토의를 거쳐 편집 방향과 내용을 감수했다. 이어 내년도 제작 계획 회의에서 신설되는 사원탐방 코너의 취재 및 편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토의했다. 또한 위드다르마 원고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집필진을 추천하고 청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판물 감수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종보 및 위드다르마와 종단에서 발행되는 출판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초랑기자

謹賀新年

총기 46년 · 불기 256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관성사
주 교 : 정사 인 선
전수 정계월
☎ 02-736-0950

밀인사
주 교 : 정사 원 당
전수 묘심해
☎ 02-762-1412

법천사
주 교 : 정사 법 경
전수 덕 현
☎ 031-751-8685

벽룡사
주 교 : 정사 법 일
전수 자행정
☎ 02-889-0211

총지사
주 교 : 정사 법 등
전수 인덕심
☎ 02-552-1080

실지사
주 교 : 정사 법 우
전수 인지심
☎ 02-983-1492

정심사
주 교 : 정사 화 령
☎ 02-491-6888

지인사
주 교 : 전수 승효제
정사 지 성
☎ 032-528-2742

시법사
주 교 : 정사 서 강
☎ 032-522-7684

서울 · 경인 교구 일동

불교의 선정 53 생활 중의 정념 10

일상에서 몸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2

화령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사람이 마음을 안정되게 가지지 못하고 욕망에 따라 앞으로만 치닫게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 항상 초조, 불안, 분노 등에 쉽게 노출되며 그 영향은 다른 사람들에게 까지 미치게 되어 온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

복잡한 생각이 심신을 지치게 한다

요즘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명상법에 관한 책이 꽤 유행이다.

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정신적인 안녕을 돈으로만 살 수는 없다.

역시 근본적인 마음의 치유는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라는 불교의 교리에 입각하여 깊이 수행하는 도리 이외에는 다 지엽적인 효과만 거둘 뿐이다.

우리가 마음을 단련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현실을 직시하여 괴로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몸을 단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단련하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정념에 대한 훈련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앉거나 서거나 움직이거나에 상관없이 호흡 하나에만 온전히 마음을 기울일 수 있어도 정념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심신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매달려 본다.

레고 쌓기나 우표 정리 혹은 자기가 수집하는 물건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감상하는 간단한 것에서부터 음악, 미술, 레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대인들은 심신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어느새 몸도 상당히 편안해짐을 느낀다.

생각이 그만큼 단순해지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로 걱정을 하게 되면 몸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엄청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긴장했기 때문에 마음의 영향을 받는 몸도 지치기 때문이다. 신경을 쓰면 소화가 안 된다거나 두통이 오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이다.

이런 것이 심하면 암 등의 심각한 병으로 발전하여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정신적 스트레스는 무서운 것이다. 이런 것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도 정념의 훈련은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몸을 단련하려면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듯이 마음을 단련하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무작정 마음을 가라 앉혀야지 해서는 잘 되지 않는다. 뛰어난 리더나 경영자들 가운데에는 명상을 통하여 심신을 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

불교에는 마음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다. 좌선이나 염불, 사경, 진언염송 등 많은 방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도 다 정념이 기본이 된다. 정념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바쁜 마음을 잠시 멈추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호흡관찰만으로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다.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마음이 너무 바빠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다. 물질적인 욕망을 비롯하여 각종 욕구로 자신을 달달 볶고 있으며 자신의 욕구 달성에 대해 방해가 되는 것에는 분노를 표출하고 이 과정에서 어이없는 형사적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한다.

매일 같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들이 이를 대변하고 있는데 어리석음의 강도는 점점 더해져서 우리가 여태껏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이없고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사람이 마음을 안정되게 가지지 못하고 욕망에 따라 앞으로만 치닫게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 항상 초조, 불안, 분노 등에 쉽게 노출되며 그 영향은 다른 사람들에게 까지 미치게 되어 온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

한 마디로 현대인들은 생각이 너무 많다.

생각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 수많은 감정들이 잇따라 오며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원흉이다. 수많은 감정들은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게 한다고 한다.

엔돌핀, 아드레날린, 도파민 등등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출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다.

마약 흡입 뒤에는 널부러지게 되는 것도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쾌락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기 때문에 지치는 것이다.

흡연이나 음주, 섹스 등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뇌를 자극하여 호르몬을 분출시켜 자신에게 일시적으로는 쾌락을 줄지 모르지만 반복되면 몸을 지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념을 유지하여 몸과 마음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에 집중하라

그러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붙들어 맬 수 있을까? 쓸데 없는 생각들을 버리고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앉으나 서나 움직이거나 항상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관건이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안정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원숭이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 다니며 까부는 것처럼 생각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지 않게 하려면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우리의 감정을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생각이 단순하기 때문에 항상 깔깔거리며 웃고 무엇이든지 쉽게 습득한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어린이들과 똑같이 배우는 데도 속도가 훨씬 느린 것은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호흡에 집중하면서 현재의 감각을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한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 차를 마시는 것도 실은 그 복잡한 생각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차 맛이라는 감각의 대상으로 돌려 일시적으로 생각을 멈추는 것이다.

가끔씩 멍하니 있거나 하늘을 쳐다보는 것도 실은 생각을 멈추어 스트레스를 풀려는 스스로의 보호 작용인 것이다.

'멈추어 서서 바라보라'고 한 말도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복잡한 생각을 담배 맛에 의지하여 추슬러 보려는 잠재적인 의도가 있지만 이러한 것은 외부의 물질에 의존하는 잘못된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담배 같은 해로운 물질보다는 각종 영양소가 든 차를 마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심신의 긴장을 풀기 위하여 호흡을 주시하면서 좌선을 한다거나 차를 마신다거나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것 등은 복잡한 생각을 감각에 집중하여 멈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각종 명상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음악명상, 미술명상, 글짓기 명상, 요가, 춤명상 등등 별별 명상이 다 유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의 원리도 실은 시청각 등의 감각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심신의 긴장을 풀려는 데에 있다.

불교 수행자라면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호흡을 바라보며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사념처 수행으로 다 커버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현대인들에게는 앞에서 예를 든 여러 가지 명상법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원리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중하면서도 깨어 있기' 이것이 관건이다.

謹賀新年
총기 46년 · 불기 256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각사
주 교: 전수 법상인
전수 묘 홍
정사 혜 광
☎ 051-552-7901

관음사
주 교: 전수 정인화
☎ 051-896-1578

단향사
주 교: 정사 록 경
☎ 055-644-5375

덕화사
주 교: 정사 시 정
전수 원만원
☎ 051-332-8903

밀행사
주 교: 정사 도 현
전수 자인행
☎ 055-354-3387

법성사
주 교: 정사 법 선
전수 자 성
☎ 051-468-7164

삼밀사
주 교: 정사 서 령
전수 혜원정
☎ 051-416-9835

동해사
주 교: 정사 법 선
☎ 051-556-0281~2

성화사
주 교: 전수 금강륜
☎ 051-254-5134

실보사
주 교: 정사 덕 광
전수 보 현
☎ 052-244-7760

운천사
주 교: 전수 정원심
☎ 055-223-2021

일상사
주교: 전수 수 행 월
☎ 055-352-8132

자석사
주 교: 정사 수 현
전수 자심관
☎ 051-752-1892

화음사
주 교: 정사 록 경
전수 법수연
☎ 055-755-4697

부산 · 경남 교구 일동

정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여명의 새 역사를 새 부대에 담읍시다.

수 현
중앙종의회 의장

교도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해도 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복덕이 가득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지난해는 우리 사회가 너무도 혼란스러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분하기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층들의 민낯은 힘들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았습니다. 그러나 민초들은 그대로 주저 앉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간절한 바람으로 촛불을 들었고, 촛불은 햇불이 되어,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어둠의 기운은 떠오르는 태양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은 법의 진리로 말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도 여러분! 대승불교의 가장 수승한 법은 우리가 매일 수행 정진하는 밀교의 법입니다. 삼밀수행을 통해 모든 법의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하고, 염송 정진은 우리를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자대명왕 진언은 온 세상을 밝고 조화롭게 만드는 에너지의 근원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실체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이던 나의 고난을 어머니가 아이를 보살피듯 가지를 내립니다. 올해는 육자대명왕 진언에 의지하여 세상의 모든 다툼이 사라지기를 서원합니다.

올해는 십이간지로 유(酉)에 해당하는 닭의 해입니다. 한자 유(酉)는 닭의 뜻도 있지만 술을 담는 부대자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닭은 예로부터 새벽의 여명을 알리고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령스러운 동물입니다. 지난 시절의 어둠을 과감히 깨쳐버리고 새로운 여명의 아름다운 역사를 새 부대에 담는 한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교도여러분! 올해도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공덕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처님 전 고두 삼배로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성도합시다.

고난과 고통을 지혜로써 헤쳐 나갑시다

법 경
서울경인교구장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아침에 첫 닭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기를 희망합니다. 크고 우렁찬 닭의 울음소리가 새벽을 깨우듯 새해 아침의 밝은 태양이 깊은 어두움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정유년 새해는 우리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거두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금년은 닭의 해입니다. 닭이 울면 동이 트고 동이 트면 잡귀가 어두움을 두려워하여 도망친다는 이야기가 고래로 부터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을 불교에서는 무명(無明)이라 합니다. 무명은 밝지 못하다는 뜻으로 지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어리석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불자 모두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예를 든다면, 자비심이 충만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비심에서 깊은 지혜가 나오며, 지혜가 있어야 또한 자비가 있게 됩니다. 지혜와 자비는 새의 양 날개와 같고 두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를 바탕으로 하는 지혜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며, 또한 지혜 있는 사람이 깊은 자비심을 드러냅니다. 지식이 많아서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밝은 지혜에서 자비가 나옵니다.

정유년의 새해에는 모두가 지모와 지능을 갖춘 닭과 같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혜로써 괴로움과 고통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여 여여함을 유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터널은 반드시 지나가며, 새벽이 지나면 날은 반드시 밝아지는 법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새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행복한 삶

정인화
부산 · 경남 교구장

정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의 힘찬 기운을 많이 받으셔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구족 하시길 서원합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가정마다 고통은 사라지고 뜻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여 만족스럽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서원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바랍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비우는 공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 가슴 속에 자리잡고 있는 탐욕과 분노와 질투라는 마군을 물리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단속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청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지계(持戒)를 말합니다. 청정하지 않고는 지혜를 얻을 수 없으며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소원성취는 업장소멸에 있고 그것은 바로 '청정지계'에 있습니다. 삼업청정(三業淸淨)을 말합니다. '삼업청정'에서 업장소멸, 소원성취, 나아가 지혜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깊은 수행을 통해 삼업청정을 이룬다면 그것이 곧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무절제와 무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다스리고 지배하며 작은 일에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행복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오늘에 충실하면 내일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그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화평한 삶을 위하여

안 성
대구 · 경북 교구장

2017년, 정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불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각 개인마다 큰 발전을 이루고 모든 소원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각 가정에 평온이 가득하고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좋은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행복과 지혜는 여유롭고 부드러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더욱 부드럽게 대하였으면 합니다. 부드럽고 순한 마음에서 진심과 원망심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끊임없는 수행과 자기 성찰로써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심과 원망심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없어지지 아니하고 솟구치기만 합니다. 반대로 환희심을 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일으키면 자연히 원망심과 진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중생 보기를 그 자식과 같이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과 번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파 하셨습니다. 보살은 악한 마음으로 뭇중생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화내거나 원한을 품는 일이 없고 오직 겸양과 부드러움이 있으며, 일체중생에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서 중생들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나 혼자만의 성불에 있지 않습니다. 자타 모두가 성불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성불이란 하루 가운데 즐겁고 화평한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끄러움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모든 일을 소원성취 하시고 수승한 불법(佛法)의 은덕(恩德)을 입으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인과법을 믿고 선업을 지읍시다

지 정
충청 · 전라 교구장

교도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는 정진으로 복된 한 해가 되시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다짐과 각오로 새해 아침을 맞이하지만 그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수행에 모자람은 없었는지? 또한 나의 탐·진·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반성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새해의 새로운 계획과 각오를 세우고 나의 수행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으면 합니다.

밝아오는 정유년 새해는 닭의 해입니다. 닭은 모든 사람들의 새벽을 알리는 동물입니다. 정유년이 새벽을 밝히듯이 우리 불자들은 올 한 해동안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대아적인 나를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서원정진을 할 때 나의 개인적인 서원뿐만 아니라 내 이웃,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세계인류를 위해 대승적인 서원을 세워봅시다.

일즉다(一卽多), 다즉일(多卽一), 나의 개인의 일이 모든 일이요, 모든 일은 나 개인의 일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나의 신행이 올바르고 수승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불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포교를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해에는 "나의 소원성취만을 바라지 말고 남과 사회, 국가의 소원성취를 바라는 차고 둥글고 큰 마음 그것이 내 마음이로다"라는 믿음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謹賀新年
총기 46년 · 불기 256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화사
주 교: 정사 법 상 / 전수 정 원
☎ 054-761-2466

개천사
주 교: 정사 우 인 / 전수 보명심
☎ 053-425-7910

국광사
주 교: 전수 혜안정
☎ 054-772-8776

단음사
주 교: 정사 도 우 / 전수 지 현
☎ 054-333-0526

선립사
주 교: 전수 혜 음
☎ 054-261-0310

수계사
주 교: 정사 현 일
☎ 054-745-5207

수인사
주 교: 정사 안 성 / 전수 유가해
☎ 054-247-7613

승천사
주 교: 정사 원 봉 / 전수 지선행
☎ 054-746-7434

제석사
주 교: 전수 행원심
☎ 053-743-9812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대구 · 경북 교구 일동

정유년 주요 종단 종정 신년법어

새해에는 자비연민 베풀어 원융화합의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금빛 닭이 큰 울음소리로 丁酉年(정유년)의 새벽을 여니 동녘 하늘에 황금 해가 떠올라 새해가 밝아 옵니다.

새해에는 찬란한 광명이 어둠을 삼켜 버리듯 娑婆世界(사바세계)에 가득한 아집과 독선, 갈등과 투쟁의 어둠이 사라지고 정의와 평등, 자유와 평화가 충만하여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살기를 祈願(기원)합니다.

과학의 발전과 물질의 풍요는 逆說的(역설적)으로 극심한 경쟁과 급변하는 환경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경쟁과 환경의 공해는 利己的 貪慾(이기적 탐욕)과 物質追求(물질추구)의 전도된 價値觀(가치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앞으로만 치달려온 결과입니다.

새해에는 마음의 눈을 뜨고 인간본성을 회복합시다. 마음의 눈을 뜨고 실상을 바로 보면 사람 사람마다 진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본마음은 허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태양보다 밝습니다.

이 마음을 닦아 본마음을 깨달으면 큰 지혜와 큰 자비가 구족하고 자유와 평화가 충만한 행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나고 날 적마다 참다운 행복과 안락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하고 寤寐不忘(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진정한 참 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중국의 송나라시대에 '蘇東坡(소동파)'는 당나라·송나라 8대 문장가에 속한 대학자였는데, 어느 날 세상의 문장과 재주, 식견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후로는 참선수행에 몰두했습니다. 하루는 노산흥룡사에 常聰(상총)선사라는 眼目(안목)이 고준한 선지식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선사께 예를 올리고 말하였습니다.

"선사님의 법문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에 상총선사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有情說法(유정설법)만 들으려하고 無情說法(무정설법)은 들으려하지 않는고?"

소동파는 선사의 물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과 정이 있는 유정물 뿐만 아니라, 산이나 바위나 나무 같은 무정물도 설법을 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에 의심이 깊게 사무치게 되었는데, 친견하고 일어나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온 몸과 온 마음이 이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말 등에 앉아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소동파는 한 생각에 깊이 빠져서 문득 疑心三昧(의심삼매)에 든 것입니다.

'어떻게 무정물이 진리를 설할 수 있는가? 왜 나는 그것을 듣지 못하는가?' 그렇게 수십 리 먼 길을 말을 타고 돌아가다가 산모퉁이를 도는 순간, 산골짜기에서 짚동 같은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에 크게 깨달아 마음의 고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략>

새해에는 새 희망의 나라를 건설합시다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닭은 새벽을 알리고 빛을 부르는 상서로운 동물(瑞鳥)로 여겨왔을 뿐만 아니라 잡귀를 쫓고(逐鬼),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오덕(五德)을 가진 선견지명이 있어 미래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는 동물로 상징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되돌아보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여명의 닭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관용과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가치의 정수를 지키지 못하며, 양심과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은 잡귀를 쫓고(逐鬼),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오덕(五德) 등을 의미하는 닭의 좋은 이미지를 본받고자 하였던 조상들의 뜻을 승화시켜서, 지난시절의 혼란과 격동의 묵은 감정이나 슬픔은 모두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수행자들은 은근한 인내와 끈기로 무장하고, 닭 울음소리가 새벽을 알리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 즉 희생정신을 가진 정의 선언, 깨달음, 위인의 탄생을 알리는 의미도 담고 있음을 마음의 경구(警句)로 삼아서, 어느 한순간도 헛된 마구니의 장난에 끌리지 말고 쉼 없는 정진에 진력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금년은 국가의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시점임을 착안하여, 국민 모두가 큰 일이 닥쳤을 때 경거망동하지 말고, 두렵고 신중한 마음으로(臨事而懼) 사회의 귀감이 될 인물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 단결하여 제구포신(除舊布新)하는 마음으로 질곡(桎梏)의 통사(通史)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희망으로 삼국을 통일한 신라 건국신화의 서조(瑞鳥)인 닭의 기운이 새로운 도약의 에너지로 힘차게 넘쳐나서, 새해에는 온 누리가 안온하고, 남북은 평화통일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61(2017)년 새해 아침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혜 초

청정한 믿음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삽시다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크게 깨닫고 능히 자비하며
시절을 따라
중생을 교화함이 부처님의 길이라.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이를 떠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토끼의 뿔을 구하는 것과 같구나.

하루하루를 생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여
청정한 믿음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살라.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상의 길이니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삶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법을 알아
끝없는 미혹 번뇌의
무명 덩어리를 깨어 부수고
깨달음의 밝은 광명으로
자성(自性)의 등불을 켜라.
내 마음을 먼저 바꾸어야
세상이 바뀌는 법.
피나는 기도 정진 없이 내 몸이 바뀌랴.
천 길 낭떠러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라.
용기 있게 시작하는 이들만이
가피를 얻을 뿐이니
불국 정토가 장엄하게 전개 되리라.

억울함을 참고 인연을 받아들이며,
아무 것도 구하지 말고
그대 앞에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진리대로 살아가라.

정유년(불기 2561년) 새해 아침
대한불교 천태종 종정 김 도 용

눈 밝고 귀 열린 마음 밝혀 만다라정토 열어갑시다

회정 정사
진각종 총인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듯
새날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일(大日)의 밝은 광명이
정유년(丁酉年) 새날을 여니
눈 밝고 귀 열린 이 마음 밝혀서
법계법신(法界法身)의
형상 있는 그대로 보고
자성중생(自性衆生)의
음성 있는 그대로 들어
만다라정토 열어 갑시다.

사도(邪道)는 정도(正道)를
꺾을 수 없고
사심(邪心)은 정심(正心)을
이길 수 없으며
사욕(邪慾)은 대의(大義)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과학만능 물질시대에는
물질 바로 쓰고 마음 바로 써서
자기 먼저 정화해야
주변환경이 순화되면서
국가사회도 정화됩니다.

진각대도(眞覺大道)
항상 열려 있으니
공도(公道)를 깨쳐
사도(邪道)를 멀리하고
자주정신 바르게 실천하여
자기 허물 깨달아 심인(心印)을
구현합시다.

정유년 원단 총인 회정

謹賀新年
총기 46년 · 불기 256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보사
주 교 : 정사 승 원
전수 묘원화
☎ 042-255-7919

백월사
주 교 : 전수 환수원
☎ 042-527-5470

법황사
주 교 : 전수 수심정
기로스승 지 광
☎ 062-676-0744

혜정사
주 교 : 전수 진일심
☎ 043-256-3813

흥국사
주 교 : 정사 지 정
☎ 063-224-4358

중원사
주 교 : 전수 정정심
☎ 043-833-0399

충청 · 전라 교구 일동

우리 모두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정유년(丁酉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닭의 해입니다. 닭은 예로부터 여명을 밝히는 광명의 상징이자 불행을 쫓고 복을 부르는 상서로운 동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어둠을 사르고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먼저 알고, 힘찬 울음소리로 만물을 깨우는 삶의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였고, 국민들은 마음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공존과 공생보다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려는 국제정세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정유년 새해는 희망과 환희로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국내 상황과 국제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촛불민심을 통해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음을 이미 증명하였습니다. 어떤 국가의 시민들보다 성숙된 국민의식을 보여 주었으며, 수많은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민족의 힘과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불자 여러분!

이러한 용기의 힘으로 다시 한 해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임제스님께서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곧 가장 진실하고 행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과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한다면 역사는 정유년을 희망과 행복의 해로 기록할 것입니다.

불교에서 닭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군다리보살의 화신이며 약사여래를 수호하는 12나한 가운데 진달라(眞達羅)를 상징합니다.

진달라는 부정과 불의로 인한 고난으로부터 일체중생을 구제하시는 호법신장이니, 그 기운과 복덕이 모두에게 두루 가득한 정유년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일생의 큰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고향을 찾으신 서산대사처럼, 한 해의 행복과 불행이 우리의 마음가짐과 실천에 있음을 깨달아 새해를 밝고 희망차게 열어갑시다.

밝은 지혜로 언제나 깨어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 모두 뜻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갑시다

도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태고종도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각 가정과 사찰에 만사형통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국가를 비롯한 우리 종단도 무척이나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국내외 정세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종단의 혼란이 함께 겹친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나라도 희망과 변화의 새로운 정치질서를 꾀하고 있고 종단도 지난 후유증을 극복하고 정상화의 궤도를 달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큰 행사들이 원만하게 치러지고 있고 호법원장 선출을 비롯한 그동안 종단의 발목을 잡아왔던 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차분하게 종단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태고종도 여러분.

우리 태고종은 역동적인 종단입니다. 지난 종단에 불어 닥친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다져진 역량은 국가와 한국불교의 미래를 더 높이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며,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무한경쟁의 치열한 생존전략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사회 또한 하루를 예측하기 어렵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뛰어야할 때이지만 지난날과 같은 방식으로 종단의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갈 때 종단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몇 사람의 힘으로 종단의 미래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종도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태고종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인은 올해 실시되는 총무원장 선거에서 종도 여러분의 선택이 종단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제25대 총무원장 선거는 각 새해에는 신뢰의 바탕위에서 변화의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며, 국민의 생활이 좀 더 풍족해지고 종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이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에는 화합과 공경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춘광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丁酉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힘찬 닭 울음소리로부터 새해가 시작되어 온 누리에 찬란한 광명과 희망이 퍼져 나갑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화합하고 공경하며 상생해 나가도록 합시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기아 그리고 테러의 공포가 상존해 있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 역시 매우 엄중한 시기이므로 이념의 대립과 집단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지극히 염려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난맥상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합과 공경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버리고 이웃의 고통을 먼저 살피는 자리이타의 정신만이 사회와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을 이루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입니다. 화합은 자신을 낮추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니,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지혜를 발현해야 합니다.

정유년 새아침의 밝고 힘찬 기운이 온 누리를 덮었으니, 구류중생이 한 몸으로 환희하고 우주법계에 행복이 가득 차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밝은 지혜를 발휘하고 단결된 힘을 모읍시다

회성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날은 언제나 좋은 날입니다.
누구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추억할 수 있고
다가올 날을 기약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수행정진으로 깨달음도
능히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순간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 희망을 이야기하고
서원을 세워갑시다.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바른 신행으로 지혜로운 생활을 누리고
기쁜 마음으로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온 국민을 슬프게 했던 사상초유의 국정혼란상황은 시대적 당체법문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국가적 위난이 있을 때마다
진호국가불사로 극복하면서
새로운 동력으로 삼았던 저력이 있습니다.

이 환란 또한 자주성 강한 국민의 힘으로
하루 빨리 질서 있는 안정을 되찾으면서
바른 자리를 회복할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 나아가
한국불교의 새 시대를 위해서
자주정신을 굳건히 하며 정도를 실천합시다.
국내 정치와 경제상황이 안정되고
질서회복을 위해
밝은 지혜를 발휘하고 단결된 힘을 모읍시다.
정유년 새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마다의 인연공덕을 지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진각성존 회당대종사의 무진서원으로
복덕과 지혜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세상을 깨우는 참회와 기도 정진을 합시다

홍파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우리의 기도로 평화와 행복의 문을 엽시다.

혼란스러운 열하의 해가 저물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마음은 실망과 분노로 전변(傳繁)되어 세상을 촛불로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그 변천의 과거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혼란과 갈등 그리고 역경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 가지의 모든 법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 갈파하시고 오직 마음의 근본을 다스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등과 혼란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 원인은 어리석은 욕구 충족을 위한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인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남보다 우월하다는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겨납니다.

과거의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권력, 명예, 물질을 갖기 위한 탐심으로 끝없는 다툼과 번뇌의 어리석음으로 수많은 역사가 반복되는 인재라 하겠습니다.

모든 현상을 바로 보는 정견(正見)의 밝은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정사(正思)의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바른 마음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정어(正語)의 말씀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청정법성의 가르침으로 갈등이 없는 맑은 세상, 평화로운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새해의 기원과 원력으로 행복의 문을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불교총지종 謹賀新年 총기 46년 · 불기 2561년

서울 · 경인교구 마니합창단

지휘 김양희 단장 손경옥
반주 홍경임 총무 최혜선

단원일동

불교총지종 謹賀新年 총기 46년 · 불기 2561년

부산 · 경남교구 만다라합창단

지휘 박윤규 단장 이상록
반주 김옥희 총무 최정숙

단원일동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밀교문화와 생활』(1)

금줄과 결계(結界)의 문화

법 경
밀교연구소장 / 법천사 주교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70년대 까지만 해도 애기가 태어난 집의 대문에는 반드시 새끼를 매달곤 했다. 흔히 '금줄', '검줄' 혹은 '인줄'로 불리는 새끼줄이다. 깨끗한 볏짚으로 꼬아 내걸었던 새끼줄은 단순한 볏짚이 아닌 생명탄생의 신호이며 신성함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왜 새끼줄을 '금줄'이라 했을까? 금줄에는 분명 구분과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액운을 없앤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금줄의 안쪽, 즉 산모와 아기가 있는 곳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경계의 구역으로서 신성한 곳이며, 그 바깥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새끼줄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부정(不淨)을 없애고 산모와 아기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글자 그대로 '금지(禁止)의 줄'이다.

이 금줄은 애기가 태어난 곳 뿐만 아니라 당산제나 마을굿을 올리는 동네의 입구나 제관(祭官)의 집과 당집에도 내걸렸다. 이 금줄은 잡신의 침입을 막음과 동시에 신성(神聖)과 부정(不淨)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었다.

이러한 금줄치기는 우리 일상에서 늘 행해져 왔던 일이다. 장을 담근 후에 장독대나 부엌, 뒷간 등 집안 곳곳에 금줄을 쳤다. 금줄로 부정(不淨)을 막고 이를 통해 장맛을 더욱 낸다고 믿었다.

금줄의 문화는 놀이문화에서도 빼놓을 수 없었다. 어릴 적 동네 아이들과 함께 넓은 마당에 줄을 긋고 두 편으로 나누어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다. 아이들의 놀이에서 금줄은 또래들에겐 신성불가침이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규칙이었다. 금을 밟거나 금 밖으로 나간 사람은 놀이에서 상대방에게 잡히거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굳이 약속하지 않아도 이미 약속된 규칙이었다. 이 금줄은 경계(境界)와 금지(禁止), 규율의 상징이고 표시였다.

밀교의례에서도 우리의 금줄문화와 유사한 예를 보게 된다. 밀교의 만다라작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작만다라법(作曼荼羅法)에서 금줄문화와 유사한 '경계·금기' 나아가서 '성역공간'의 의미를 보게 된다. '금강궐(金剛橛)'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금강궐은 만다라를 건립하기 전에 도량이나 토단(土壇)의 네 구석에 세우는 기다란 막대 기둥이다. 이를 사방궐(四方橛)이라고도 한다. 금강궐의 기능은 당연히 악마의 침입을 막고, 단(壇)과 도량(道場)을 견고히 하여 여하한 악마도 도량의 지계(地界)를 동요치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금강궐은 단순한 막대가 아니라 '성스러움의 상징'이요, '중대한 임무를 띤 막대'이다.

금강궐 외에도 팔방계(八方界)를 결(結)하기 위해 두르는 금강장(金剛牆), 상하 허공의 상방계(上方界)를 망으로 펼쳐서 결(結)하는 금강망(金剛網) 등의 밀교 결계법(結界法)은 우리의 금줄 문화와 많이 닮아 있다. 금줄과 마찬가지로 구획(區劃)·결계(結界)·성역(聖域)을 표시하며, 마중(魔衆)과 악귀의 침입을 막고 부정(不淨)으로부터 보호하며 액운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밀교에서 만다라 토단이나 도량 주위에 구마이를 바르는데, 이것은 우리네 조상님들이 마을의 수호신(守護神)인 당산이나 당수나무에 동제(洞祭)나 당산제(堂山祭)를 지내기 위해 금줄을 치고 그 주위에 붉은 흙을 뿌리는 의식과도 흡사하다. 이 붉은 흙은 액운과 부정, 악귀를 물리치는 효과를 지닌다. 밀교의 구마이와 닮았다. 구마이는 땅에 닿지 않은 소똥으로, 단(壇)의 치지(治地)·견고(堅固), 도량의 청정을 위하여 바른다. 밀교의 구마이를 당산제의 붉은 흙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밀교에서 금줄문화는 당산제와 동제 보다 그 이상의 종교적 의미를 지닌다. 금강궐을 세우고 구마이를 바른 뒤에 금강보(金剛寶)로 도량을 장엄하고 도량 바깥에 먹줄을 치고 굵은 밧줄로 엮어 매고 팔방(八方)에 큰 보당(寶幢)을 두르고 오보(五寶)의 영락(瓔珞)을 달아 놓기 때문이다. 이것은 금기·결계의 차원을 넘어 불보살의 도량으로 장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금줄문화가 액운을 없애고 풍요를 기원하는 제재초복(除災招福)에 있다면, 밀교의 결계문화는 재난을 없애고 복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오 궁극적으로 불신(佛身)의 성취에 있다. 밀교의 작법이 성불을 위한 과정이자 현세이익(現世利益)의 방편인 것이다.

▲ 출산후 대문에 걸어두는 금줄

요즘에는 신성한 의미로서의 종교적 금줄을 찾아보기 힘들다. 세상이 많이 변한 탓이다. 조금 남아 있다면, 아주 고약한 곳에서나 목격할 수 있다. 쓰임새나 의미에 있어서도 썩 좋지 않다. 통제와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 사고현장의 「조사중 · 수사중 · 출입금지」 나 「통제구역」 정도의 표식줄이나 팻말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금줄의 신성함이나 청정은 없고 접근금지와 통제수단의 살벌함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데스크 칼럼

위기다. 불교 인구는 왜 급감하는가?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 1058만 8천명으로 전체인구의 22.8%에 달하던 불교 인구는 지난해에는 761만9천명(15.5%)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전체 인구 4905만2천명 가운데 종교가 있다고 답한 인구는 2155만 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3.9%를 차지했다. 또한 인구의 절반 이상인 56.1%가 '종교가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기독교(개신교) 인구는 오히려 10년 전보다 100만 명 이상 더 늘어난 점에 우리는 주목 해야 된다. 기독교 인구는 2005년 844만6천명(전체 인구의 18.2%)에서 지난해 967만 6천명(19.7%)으로 1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천주교 인구도 10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7.9%로 감소했다.

기존의 전통 종교로서 역할을 굳혀왔던 불교의 위기가 닥쳐 온 것이다. 종교 문항에 대한 답변 중 어머니가 절에 가시니까, 나도 불교도 라고 대답한 인구의 허수를 뺀다면 그야 말로 이번 총조사의 결과인 15.5%의 절반 정도인 8.75%가 불교도라 볼 수 있다. 이 마저도 확신 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다.

무엇이 불자들을 떠나게 했을까? 일반론으로 생각해보면 사회구조의 다양화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자신이 지향하는 신념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절대적인 진리나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내부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시대의 변화와는 달리 다양한 교화 방편을 만들어 내지 못한 불교계의 안일한 대처를 반성해야한다. 뜻 모르는 경전과 승직자의 축원만 들이미는 기복 불교의 구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

반면 기독교(개신교) 인구의 증가는 무엇인가 고민해 보자. 전 세계에서 단일교회로 최고의 신자를 가졌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내외부적으로 많은 잡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최대의 교회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동질감, 소속감이다. 내가 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동질감, 소속감이다.

실제로 대형 교회 출신의 연예계, 정치계, 경제계 인사들의 사회적 영향력 안에 들고자하는 욕구 때문이다. 어찌 보면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사회성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불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의 불교 교단은 신도들의 조직화를 크게 반기지는 않는다. 불자와 승직자의 일대일 관계를 통해 종교적 소구 소원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물론 많은 종단들이 이를 깨고 참신한 신도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지만, 아직은 승직자의 원력에 기대는 기복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도들의 힘이 커지면 승직자의 권위는 떨어진다는 암묵적인 인식이 승가 사회에 떠돈다. 부처님이 처음으로 득도하시고, 진리의 불을 밝혀 평생을 길 위에서 설법하시며 열반에 드신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 수행자는 절대적 권능을 가진 신이 아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신도들의 도움으로 깨치기 위해 용맹정진 하는 수행자 일 뿐이다.

사부 대중이란 가장 기초적인 불교 용어가 있다.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승속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한국 불교의 위기는 승직자들이 우바이, 우바새를 대중으로 대우하지 않는데 근본원인이 있다. 이제는 법을 깨치기 위한 도반으로 함께 불법을 받들어야 할 때이다.

모두가 형제이고 가족이며 중생이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견책하고 다듬어서 진리를 깨쳐야 한다. 그것 만이 불교의 본연의 중생구제의 대서원을 이루는 것이다.

모두가 한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인생의 고락을 같이 해결한다면, 불법에 등을 돌린 많은 미혹 중생을 부처의 반야선에 같이 태울 수 있다고 본다.

새해에는 모두가 즉신성불의 참 좋은 법을 인연으로 받아들이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편집장 김종열

불교총지종
謹賀新年
총기 46년 · 불기 2561년

대구 · 경북교구 금강 합창단

지휘 배해근 단장 김계숙
반주 박수영 총무 김영지

단원일동

불교총지종
謹賀新年
총기 46년 · 불기 2561년

마산 운천사 부림 합창단

지휘 박건우 단장 이혜주
반주 정진실 총무 이진숙

단원일동

티벳대장경역경원, 겨울방학 티벳어 특강 실시

무료로 실시하는 '우리말 교재로 배우는 티벳어 강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2017. 1. 4 2. 22 매주 수요일 진행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대원) 티벳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스님)은 2017년 겨울방학을 맞아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티벳어 무료 특강을 실시한다.

티벳 불교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우리말 교재로 배우는 티벳어 강좌'는 동국대 티벳대장경역경원 양승규 연구원이 초급 티벳어와 중급 티벳어로 나누어 강의한다.

교육 기간은 2017년 1월 4일부터 2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 되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 티벳대장경역경원 홈페이지(www.koreatibet.kr)에서 볼 수 있으며, 신청 및 문의사항은 동국대 티벳대장경역경원(054-770-2893)으로 하면 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은 지난 2009년에 설립되어, 티벳대장경 역경사업을 위한 티베트어 한글표기안, 티벳어 교재 발간 및 석학들의 특강, 국제학술대회 개최, 번역서 출간 등 다양한 사업과 관련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천태종 종조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5주년 봉축법요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등 2만여 명 동참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도용 종정예하를 비롯한 종단 대덕 스님과 불교 각 종단 총무원장, 지자체 관계자, 정계 인사 등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5주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은 도용 종정 스님과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등 내빈들의 헌향과 헌다, 헌화 의식으로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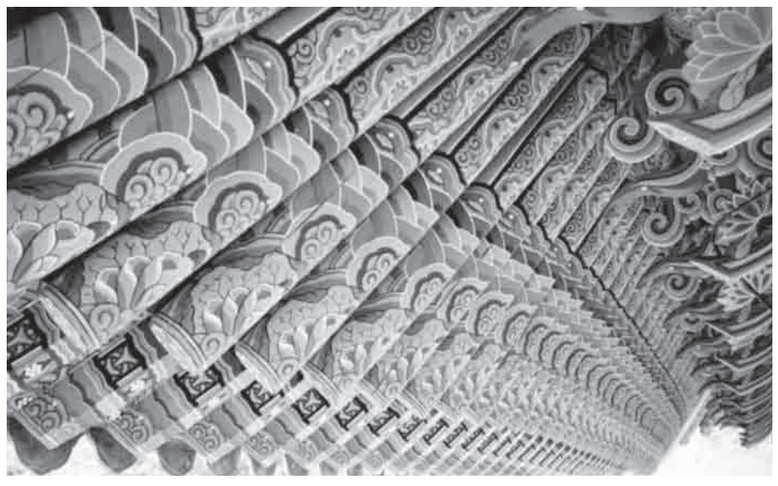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부회장 회성 정사(진각종 통리원장)가 대독한 축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께서는 국운이 쇠퇴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진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셨고, 일찍이 제불보살의 무량한 가르침을 닦아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큰 원력을 세우셨다."며 "급변하는 21세기의 환경에 맞추어 혁신적인 종단의 틀을 갖추어 주신 것이 오늘날 천태종의 활발한 활동의 동력이 되었고, 그 에너지는 앞으로도 더욱 크게 진작되어 나갈 것"이라고 천태종의 발전을 기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안팎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상월원각대조사님의 탄신 105주년을 기리는 대법회가 열리니, 이 또한 대조사님의 가르침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이 화합해 희망을 보듬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오늘의 뜻 깊은 법요가 천태종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어 가는 좋은 인연으로 회향되기를 염원하며, 모든 분들이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국인의 색깔, 그 숨은 뜻은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때時깔色, 우리 삶에 스민 색깔'



▲ 한국인의 색감을 잘 표현한 단청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은 특별전 '때時깔色, 우리 삶에 스민 색깔'을 2016년 12월 14일(수)부터 2017년 2월 26일(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I 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인의 삶에 투영된 다채로운 색의 상징과 색감을 경험하는 자리로, 흥선대원군 초상(興宣大院君 肖像, 보물 제1499호), 흑초의(黑綃衣, 중요민속문화재 제13호), 일월오봉도, 색동두루마기 등의 전통 생활품과 오색광율(공예품, 정해조 작), 백자 달 항아리(구본창 작) 등의 현대 작품에 이르기까지 총 350여 점의 자료와 영상물이 3부로 나누어 전시된다.

1부 '단색(單色)'에서는 한국적인 정서와 가치관이 담긴 대표적인 다섯 가지 색 청(靑)-적(赤)-황(黃)-백(白)-흑(黑)색을 소개한다.

청(靑)은 봄, 청춘, 희망, 이상향을 표현하며, 적(赤)은 권위, 벽사, 구복, 반공, 결속, 단결을 표현하며, 황(黃)은 신성, 부, 권위, 풍요, 경고를 표현하며, 백(白)은 순수, 결백, 청렴, 절제를 표현하며, 흑(黑)은 밤과 어둠, 죽음, 격식, 위엄, 규칙을 표현한다.

2부 '배색(配色)'에서는 오행(五行)을 따른 음(陰)과 양(陽)의 조화,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의 어우러짐을 색으로 표현한 유물과 작품들이 전시된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음과 양의 균형을 추구하면 복(福)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이와 함께 색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금기숙 작가의 작품 '장옷',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 규정된 남녀의 색깔을 보여주는 윤정미 작가의 '핑크 & 블루 프로젝트 II'도 함께 선보인다.

3부 '다색(多色)'에서는 왕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뿐 아니라 중요한 의례에 나타나는 한국인의 전반적인 색채 감각을 다룬다.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을 따른 다섯 가지 색의 어울림을 보여주는 궁중의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와 민간의 복개당(福介堂) '일월도(日月圖)', 색의 조화로움을 보여주는 '색동두루마기'와 '조각보', 영롱한 빛깔의 자개 장식으로 꾸민 '나전 칠 상자(螺鈿漆函)' 등을 선보인다.

국립민속박물관=김초랑 기자

불교방송 이사회 내년 예산안 확정

통리원장 인선 정사 참석 의견 심의

불교방송 이사회(이사장 종하 스님)는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15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12월 8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제97차 이사회를 열고, 불교방송 내년도 예산안 및 이사 선임 변경의 건을 심의 확정했다.

불교방송 예산 238억 6900만원으로 올해보다 1% 늘어났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와 총무부장 호당 정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임원 변경을 결의했다.

이날 선상신 사장은 "내년 글로벌 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사옥 부지를 확보하고 음악 FM방송과 제주, 세종시, 대전 지방사 설립, 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과 사업 파트, 보도와 제작, 기술 파트를 각각 묶어 본부장을 두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도서병리학연구소

'의령 신현세 장인이 제작한 한지 2종' 우수성 공식 인증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맹식)와 주한 이탈리아 한국대사관(대사 이용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서병리학연구소(ICRCPAL/문화재 복원·보존 연구기관)에 한지 표본을 제공하고 문화재 복원력 인증 테스트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인증받은 한지는 의령 신현세 장인의 전통한지 공방에서 제작한 '의령 신현세 전통한지 1'과 '의령 신현세 전통한지 2' 두 종류로, 이번에 이탈리아 정부기관이 문화재 복원 재료로서 우리 한지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증함에 따라 세계화 사업이 첫 결실을 본 셈이다.

도서병리학연구소는 한지의 인증과 더불어 자국의 중요 문화재 5점을 복원하는데 이미 우리 한지(의령 신현세 한지 1과 2)를 사용한 바 있다. 특히, 이탈리아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문화재 중 하나인 성 프란체스코의 친필 기도문이 적힌 종이(카르툴라, Chartula) 복원에 한지를 사용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원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한지의 우수성이 널리 홍보됐다.

이번 우리 한지의 인증 획득은 한지가 외국의 공인기관에서 문화재 복원 용도로 공식 인증을 받은 최초의 사례이며, 그간 서양의 문화재 복원에 광범위하게 쓰여 온 일본의 화지와는 별도로 한지의 활용 가능성을 새롭게 부각하고 세계의 여타 종이에 대비하여 한지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편집=이선희 기자

謹賀新年
총기 46년 · 불기 2561년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원장 하재희 외 교사일동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謹賀新年
총기 46년 · 불기 2561년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 초록 어린이집
원장 황화성 외 교사일동

서울시 강남구 헌릉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층
문의 ☎ 02.445-2326

謹賀新年
총기 46년 · 불기 2561년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서초 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원장 손재순 외 교사일동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070-7204-2030

유물로 보는 밀교

-보물 제925호

명 칭 : 쌍계사팔상전영산회상도 (‰ 。”)
시 대 : 조선시대
소 재 지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쌍계사 (운수리)

▲ 쌍계사팔상전영산회상도

석가가 영취산에서 설법한 내용을 묘사한 영산회상도이다. 크기는 길이 410㎝, 폭 273㎝이다. 석가불을 중심으로 사천왕상, 여러 보살, 제자 등의 무리가 석가불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다. 석가불은 오른쪽 어깨가 드러난 우견편단의 옷을 걸치고 중앙에 앉아 있으며 얼굴은 둥글고 이목구비는 작으며 신체는 건장하고 당당하다. 사천왕상과 여러 보살, 제자들의 모습은 석가불처럼 당당한 모습이다. 색채는 밝고 부드러운 중간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조선 숙종 7년(1681)에 그려진 이 불화는 비교적 큰 편이지만 짜임새 있는 구도를 보여주고 공간의 처리방법과 회화기법 등이 매우 뛰어나며 17세기 중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이다.

자료제공=문화재청

눈이 밝아지는 진언

일정마니수(日精摩尼手) 진언

옴 도비가야 도비바라 바리니 사바하

만약 눈이 어두워 밝게 보지 못하면
이 진언을 외우라

내용참조: “불교총전” 자기에 대한 덕의편 380peg

謹賀新年
총기 46년 · 불기 2561년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잠원햇살어린이집
원장 김선희 외 교사일동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8길 25(잠원동, 잠원래미안아파트)

謹賀新年
총기 46년 · 불기 2561년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교사일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 051-552-7901

謹賀新年
총기 46년 · 불기 2561년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다
만다라요양원
종사자 일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 5길 12 ☎ 063-224-4358

서하보살의 불교문화산책

인연, 작지만 큰 진리

빛의 마술사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인연의 연결고리에서 사랑의 기적 만들어내

▲ 포스터들

실을 잇는 것도 무스비
사람을 잇는 것도 무스비
시간이 흐르는 것도 무스비
우리가 만드는 끈목도 신의 솜씨
시간의 흐름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

더욱 모여 형태를 만들며 뒤틀리고 얽히고
때로는 돌아오고, 멈춰서고 또 이어지는
그게 바로 무스비
그게 바로 시간

물이든 술이든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간 게
영혼과 매듭지어지는 것
이 또한 무스비

-미츠하 할머니의 대사 중에서
(*무스비:일본 종교의 토지 수호신에서 따온 말)
(*무스비 사전적 의미:매듭과 끝맺음(결말)이라는 뜻)

잔잔한 감동과 격한 반전의 저패니메이션 '너의 이름은(君の名は·your name/러닝타임 106분/12세 이상 관람가)'이 1월 4일 개봉해 관객들과 만난다. '너의 이름은'은 꿈속에서 몸이 뒤바뀐 도시 소년 '타키'와 시골 소녀 '미츠하'의 이야기. 천 년 만에 혜성이 다가오는 일본을 배경으로 절대 만날 리 없는 두 사람이 꿈을 통해 이어져 반드시 만나야 하는 운명이 되어가는 기적 같은 러브스토리다. 한 번 맺어진 인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만나고자 했던 두 주인공이 서로 인연을 다시 잇고자 백방으로 뛰는 그 과정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담담하게 담아낸다. 섬세한 배경은 압도적인 영상미와 거대한 스케일로 펼쳐져 감동을 배가시킨다.

감독이 던지는 '인연'이라는 이름의 화두 속으로 빠져보자.

신카이 마코토 감독 인연의 소중함 그려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이을 후계자라 불리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장편 데뷔작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로 2004년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에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누르고 애니메이션 영화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저패니메이션'을 이끌 차세대 감독으로 부상했다.

신작 '너의 이름은'을 통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만날 수 없었던 인연이 만나 매듭이 지어지는 순간을 그리며 인연의 소중함에 주목하게 만든다. 이 인연은 손목끈과 '무스비'로 대변돼 시종일관 인연의 소중함을 담아낸다.

'빛의 마술사'라 불리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을 묻는 것"이라며 "이름을 묻는 것으로부터 관계가 출발한다고 생각한다"고 작품 제목을 '너의 이름은'으로 지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제목처럼 작품은 후반부로 갈수록 치열하게 이름을 묻는 것으로 '이름을 아는 인연'에 의미를 부여한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장소에서 살고 있고, 어쩌면 그 두 사람은 만날지도 모르는 존재다.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서로 만나게 된다.'

감독이 밝히는 '너의 이름은'의 제작 동기이자 작품을 관통하는 이야기의 기본틀이다.

일본에서 1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저패니메이션 흥행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 '너의 이름은'. 12월 4일 LA 비평가 협회상은 올해 최고의 애니메이션으로 '너의 이름은'을 선정하는 등 해외 인기도 심상치 않다. 이번 수상으로 2017년 개최되는 제89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귀추가 주목될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찰진 흥행을 예고하고 있는 '너의 이름은'은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감독 미야자키 하야오)'에서도 활약했던 배우 카미키 류노스케와 영화 '늑대아이(감독 호소다 마모루)'의 배우 카미시라이시 모네의 목소리 출연으로 재미를 더했다.

여기에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 스튜디오의 수많은 대표작 특히 '모노노케 히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작화 감독을 맡았던 안도 마사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전작 '크로스 로드'의 캐릭터 디자인과 작화 감독, 애니메이션 '그 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캐릭터 디자인을 한 타나카 마사요시, 일본의 인기 록밴드 래드윔프스(RADWIMPS)의 협업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사춘기 소년소녀의 첫사랑이라는 주제를 천착해 온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장편 데뷔작인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2004년)에서 여주인공 사유리가 혼수상태에 빠지는 것을 시작으로 '초속 5센티미터', '별을 쫓는 아이', '언어의 정원' 등 그간의 작품에서 순수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과 동시에 이별의 아련함을 담아냈다. '첫사랑은 맺어질 수 없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던져온 것.

부산국제영화제 기자회견서 작품 제작의도 밝혀

지난 여름,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갈라프레젠테이션 부문 초청작 '너의 이름은'의 기자시사회 및 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초속 5센티미터' 이후로 '해피엔딩을 만들 수 없는 작가'라는 말까지 들어서 '너의 이름은'은 출발부터 관객이 행복한 마음으로 극장을 나설 수 있는 영화를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라고 밝혔다. 해피엔딩을 약속한 것.

감독의 작품세계를 변화시킨 계기가 된 것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었다.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일본인의 아픔이다. 감독은 대지진을, 하늘을 화폭으로 삼아 빛나는 장관을 선사한 혜성으로 덧입혔다. 누군가에게는 생애 최고의 장관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담담하게 보여준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수많은 사람이 대지진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후 일본의 많은 것이 바뀌었다. 나도 바뀌었고, 관객도 바뀌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었다면', '내가 만약 지진의 피해자였다면'과 같은 생각을 모두가 함께 공유한 시간이었다. 그러한 경험 위에 픽션을 덧붙인 다음 당시의 바람과 기도를 담아내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

자연재해 앞 인간의 사투 사춘기 소년소녀의 풋풋한 사랑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서사적으로는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놓인 인간의 사투를, 감성적으로는 사춘기 십대의 풋풋하고도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축으로 삼아 사랑의 소중함과 기억의 유한성, 인연이 만들어 내는 기적 등을 녹여냈다.

작품은 해피엔딩을 위해 두 주인공의 인연을 더욱 부각시켰다. 돌고 돌아 마주친 순간 확인하는 서로의 이름은 그래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너의 이름은'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은 '무스비'다. "끈을 연결하는 것도 무스비, 사람을 연결하는 것도 무스비, 시간이 흐르는 것도 무스비"라는 미츠하 할머니의 대사를 통해 인연의 질김과 시공간의 연결을 주요 소재로 다뤘다. 이 대사를 들었기에 끊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감독은 "무스비는 일본 종교의 토지의 수호신에서 따온 말이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행위도 무스비다. '너의 이름은'은 시간의 복잡함을 다룬 작품이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주인공들을 이어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무스비를 떠올렸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다시 이어질 수 있었구나. 돌아왔구나'하고 실감케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사춘기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스스로 10대 때 품었던 궁금증과 의문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 43세가 되었지만 10대의 기억은 고스란히 작품으로 되살아났다. 사춘기 때의 감정, 당시에 완성되지 않았던 사람 사이의 관계 등은 감독에게 삶의 화두가 됐고, 그 화두는 그가 만들어내는 모든 작품에 녹아 들어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필연만 있을 뿐. 부처님께서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했다. 간절한 바람이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을 이어준 것일까? 그것이 타키의 바람인지, 미츠하의 바람인지 작품을 보며 찾아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새해를 열며, '너의 이름은'이 던지는 인연의 화두 속으로 푹 빠져보자.

강지연 구성작가

謹賀新年
총기 46년 · 불기 256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경인교구
지회장: 김은숙
부회장: 박정희 손경옥
총무: 이인성 홍순화

부산경남교구
지회장: 황은희
부회장: 이지은 허태연 류길자
총무: 조향선 신혜영

대구경북교구
지회장: 최윤정
부회장: 권순복 김연조
총무: 김상필 곽노선

충청전라교구
지회장: 민순분
총무: 배정임

각 사원 신정회 회장과 임원 일동

불교총지종 신정회 일동

불교총지종 본산 '총지사' 서원당
불교의 생활화·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종 종무원 모집 공고
불교총지종에서 종단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 사무직
모집인원 : 0명
자격요건 : 학력무관. 경력무관. 성별무관
필수사항 : 1종 보통운전면허
우대사항 : 운전가능자, 문서작성 우수자
◎ 근무조건 및 환경
근무형태 : 정규직
근무요일/시간 :주5일(월-금) 오전9시-오후6시
급여 : 1.800-2.000만원
인근전철 :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 1번출구
◎ 전형절차 및 제출서류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016년 12월 20일 (화) 13시- 2017년 1월 31일(화) 24시
이력서 양식 :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온라인 이력
접수방법 : 취업포털 사람인 (www.saramin.co.kr) 온라인 접수
불교총지종
새해불공 일정
총기 46년 (불기 2561년) 새해 불공
장소 : 전국 서원당
일시 : 2017년 1월 2일 ~ 1월 8일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Tel: 02.552.1080~3 Fax: 02.552.1082